

# 액상형 전자담배 중증 폐질환 1030세대서 급증

### 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끊어야”

### 보건당국, 2020년 상반기 인체 위해성 연구결과 발표

### 담배법 3종 국회 계류...액상 제품 통관 까다로워져

액상형 전자담배로 중증 폐질환이 발생한 미국인 환자 10명 중 8명이 35세 미만 젊은층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도 10~30대, 특히 청소년이 해당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합동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2차 대책’을 브리핑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특히 청소년들은 즉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대책은 청소년 사용 금지와 액상형 전자담배 핵심 구성품인 니코틴 용액을 규제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6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기형(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질환 환자 79%가 35세 미만이다. 그중 15%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들 폐질환 환자들이 감염이 아닌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인 폐질환 환자 78%는 대마액상성분인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사용했고,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 비율도 10%로 조사됐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 주성분이다. THC가 들어간 액상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것으로 검출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중증 폐질환 환자도 30세 남성으로 젊다. 이의 심한자는 중증 폐질환이 발생하기 2개월~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줄 및 랩에이퍼)를 사용했다.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 가슴통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피로감, 발열 증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해 가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다. 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의한 폐 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 판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THC 성분 제품만 핀셋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보건당국은 니코틴만 들어간 제품도 성분을 분석하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선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HC 성분뿐만 아니라 니코틴만 사용한 제품에서도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며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모든 제품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오는 11월까지 THC와 가황물질, 용매제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실험실 연구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판매행위 단속을 대폭 늘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와 홍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중증 폐질환이 발생한 미국인 환자 10명 중 8명이 35세 미만 젊은층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도 10~30대, 특히 청소년이 해당 제품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합동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액상용액 유통과 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대마성분액상(THC)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배터리를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법을 위반한 업자는 형사고발한다. 또 불

법 배터리의 온라인 유통과 판매를 제한한다.

항료를 포함한 니코틴액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통관 절차도 강화한다. 줄기·뿌리 니코틴은 통관 때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외직구와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니코틴은 간이 통관을 배제한다.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

려면 ‘담배정의 확대 법안’ 및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황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관련 법 3종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는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무엇보다 3종의 담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꺠련형 전자담배의 귀환...‘아이코스’부터 ‘글로’까지 차세대 제품 ‘붓물’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존 ‘아이코스3’를 업그레이드해 연속사용(연사) 가능한 신제품 ‘아이코스3 듀오’를 선보인다. 지난해 10월 아이코스3와 아이코스3 멀티 출시 이후 1년 만이다.

스틱 1개 사용 후 충전 과정을 거친 뒤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개선했다. 충전 시간도 1분 50초로, 기존 아이코스3(3분 20초)보다 1분 30초나 줄었다.

BAT 코리아도 다음 달 신제품 ‘글로 프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일본에서 출시한 글로 프로는 전용 스틱 네오를 가열하는 히

터 블레이드 부분에 새롭게 ‘유도 가열기술’을 적용했다. 기존 글로 기기보다 더 높은 온도로 스틱을 가열할 수 있다. 흡연까지 필요한 가열 시간 역시 기존 40초에서

### 액상형 불안감 ↑...꺠련형 신제품 출시 잇달아

### 세금 문제 ‘걸림돌’...규제 강화 속 안정성 입증해야

280도 기준 10초로 크게 단축했다.

KT&G도 제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KT&G 관계자는 “성능

이 개선된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제품 개발 중”이라며 “제품을 완성하면 적당한 시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꺠련형 전자담배들이 잇달아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기존 제품의 교체 주기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꺠련형 전자담배 보증 주기는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성능이 저

하되고, 디자인 등의 문제로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흡연자가 많다.

여기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주도권을 잡기에도 유리한 상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미국 등에서 폐질환 환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폭발 사고까지 터지면서 흡연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꺠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잠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반짝했지만, 꺠련형 전자담배를 택하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물론 흡연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 문제가 걸림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담배

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연 광고는 물론 판매 등에도 간간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현실화하면 꺠련형 전자담배까지 ‘붓물’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배에 대한 유해성과 별개로 세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세금 인상이 꺠련형 전자담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꺠련형 전자담배까지 세금이 오르게 되면 기존 꺠련 담배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뉴스1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